

# 電力部門-엔지니어링-產業의 海外進出促進 方案

( 3 )

閔 景 植 韓國코트렐(株) 臺灣支社長  
卞 鍾 達 韓國전력기술(株) 위촉기술역

## 2. 우리나라의 중전기 공업

### 가. 개 황

중전기 공업은 주로 발전, 변전 및 송배전 등 전기에너지의 발생 또는 수송, 동력의 제어, 보호 등에 사용되는 일련의 기기를 제조·공급하는 공업으로 세계적인 경기, 특히 건설·설비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전기공업은 1960년대 초까지만해도 전력사업의 부진과 관련공업의 낙후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하였으나, 1964년의 무제한 송전실시와 농어촌전화사업의 추진시책에 따라 그 수요 기반이 확대되어 1960년대 후반에는 154kV 특별고압변압기를 조립생산하는 등 생산 및 기술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중전기 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의 중화학공업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중전기의 양산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대용량급 중전기 및 발전설비의 국산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특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345kV급 변압기를 비롯한 초고압 대형기기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전반까지는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1980년을 전후하여 대형설비의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 과당경쟁,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으로 업계는 가동률 저조, 수익률 저하 등 기업경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마침내 정부의 개입으로 초고압 부문에 대한 투자 조정, 산업합리화에 의한 생산체계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89년에 들어서서 비로소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또한 중전기 공업은 이와 같은 발전과정과 내수위주의 수입대체 산업으로 성장해 온 구조적 요인으로, 수출산업으로서의 성장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나. 중전기의 수출현황

중전기제품의 수출은 1988년에 5억 4천만불로 지난 1981년부터 연평균 17.8%의 성

장률을 보여, 동 기간의 우리나라 총수출의 연평균 증가율 16.2%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9년도에는 5억 2천 5백만불로서 전년보다 2.8%가 감소한 실정이다. 회전 및 정지기기는 전년보다 12.7%의 증가률을 보였으나 전선의 실적이 전년보다 25.7%의 감소를 보인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9년도 중전기기의 지역별 수출실적을 표 4-3에 제시하였다.

중전기기 제품은 수입이 수출의 약 2.2배로서 지난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수출,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볼 때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수출입현황을 표 4-4에 표시하였다.

#### 다. 중전기기 공업의 특징

중전기기는 전력사업의 발전 및 송배전계통, 생산설비 동력계통의 중요기기로서 국가 기간산업 및 자본재공업의 주축을 이루는 기술집약적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제품의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므로 계획생산과 규격화가 어려워 주로 주문에 의하여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전기기 제품의 수출은 해외의 건설경기와 산업설비투자 및 전원개발에 종속되어 수요가 발생되므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단위 규모의 수출은

〈표 4-3〉 1989년도 중전기기 수출실적

(단위 : 1,000달러)

구 분	계	회전기기	정지기기	전선	기타
일 본	157,625	17,131	109,876	23,603	7,015
미 국	98,305	28,328	48,421	16,532	5,024
동남아	128,404	15,069	55,360	52,662	5,313
중 동	22,630	500	3,438	18,456	236
유 럽	44,244	1,043	33,719	6,716	2,766
기 타	73,859	7,061	20,069	43,435	3,294
합 계	525,067	69,132	270,883	161,404	23,648

자료 :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협회지」 1990. 5

〈표 4-4〉 중전기기 수출입 대비표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1981	1983	1985	1987	1988	1989	연평균 증가율
수 출	171	245	221	398	540	525	15.1
수 입	393	424	522	928	1,026	1,168	14.6
적자규모	222	179	301	530	486	643	14.2

자료 : 대한전기협회「대한전기협회지」 1990. 5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제입찰 참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중전기기 생산은 장기간의 경험에 의한 기술축적의 필요성이 큰 기술 및 경험집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제품의 내구성, 성능보장, 안전성 등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에 생산업체의 과거 납품실적, 사후관리체계 및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 라. 개방시대의 도래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전기공업은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실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술도입에 의한 모방생산에 의존한 내수위주의 수입대체형 산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또한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능력부족과 함께 대다수 영세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전기업계는 이의 탈피를 위한 자금력의 부족과 우수한 전문 고급기술인력의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정부조달 협정의 가입이 기정사실화되어 추진되고 있어 불원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시도와 내수시장의 개방에 따른 시련을 맞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보다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시장은 한국전력이 2000년까지 45조원을 투자하는 80기의 발전소 건설계획으로 이에 따른 부대설비 확장 등 수요의 점차적인 증가추세와 시장개방 압력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그동안 양적 성

장애 치우쳐 온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의 일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큰 시련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공기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산업제품의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여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되었다.

중전기분야 73개 과제, 산업기계분야 8개 과제, 전자부품분야 4개 과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측기 분야 4개 과제 그리고 가전제품분야 12개 과제 등 총 5개분야 106개 과제에 대하여 한국전력은 약 200억원 규모로 전력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1990. 1. 25 설립된 한국전기기공업진흥회(회장 : 이회중)는 정부위탁 각종 지원업무의 집행, 수출시장개척등의 수출입관련업무, 단체표준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이에따른 품질수준향상,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추진에 따르는 대응과 국내 중전기산업의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업계의 이익을 위한 의견수렴과 대정부 건의로 중전기기기공업 발전에 기여하려고 설립되었는 바 그 활동이 기대된다.

### 3. 개발도상국과 전력사업

#### 가. 경제개발과 공공복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으로부터의 채무누적과 같은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경제적인 자립과 개발을 성취해 나가는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농산물을 보다 부가가치가 있도록 생산·가공하여야 하며, 그 다음 단계로서는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공업부분 육성에 역점을 두어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또한 수출에 의한 외화를 벌어들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수출물량을 늘려감으로써 안정적으로 외화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업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인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란 전력의 풍부한 공급력 뿐만이 아니고, 높은 품질의 확보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어떤 주변조건을 막론하고 공업육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중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현재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력의 공급부족뿐만 아니라, 잦은 정전과 심한 전압변동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력사정의 이와 같은 문제는 공업화를 위한 투자이욕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업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복지면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일반국민에 대한 전기공급의 보급률이 낮은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농어촌은 많은 수의 지역사회가 전기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국민대중의 생활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는 공공복지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전력공급을 전국 방방곡곡에 확대시켜야만 한다. 밤이 되면 어느 곳에서나 집집마다 전등을 밝히는 것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성공의 상징인 것이다. 보다 개선된 전력공급 기반구축에 의한 착실한 공업화의 전진으로 얻어지는 수입의 증가는 전력공급의 확대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과정은 나라마다 자연환경, 경제상황 등 제각기의 전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마다 각각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전력공급의 확고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공통된 필수요건이다.

개발도상국은 각각 자기 나라 여건에 맞는 풍부하고 질이 좋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설비개선에 의한 전력공급의 확

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 나. 세계 에너지 수급균형과 환경보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의 세계에너지의 수급균형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 특히 석유에너지의 수요는 이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인구증가와 경제개발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비 OPEC 국가들의 석유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때 이와 같은 추이는 지구의 석유수급균형을 압박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현재에는 그들의 에너지공급을 비상업 에너지인 산림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산림자원의 감소가 계속된다는 것은 환경보존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비상업 에너지원을 제외하고, 석유와 기타 화석연료는 현재로서 에너지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질소산화물(NO<sub>x</sub>)과 황산화물(SO<sub>x</sub>)를 계속해서 생성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산성비와 이산화탄소(CO<sub>2</sub>)에 의한 온실효과를 더욱 확대,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에 넣을 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전화(電化)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개발 및 공공복지를 위하여 이들 국내에 부존하는 자원의 활용 또는 석유 이외의 다른 대체에너지원 즉 수력, 석탄, 천연가스, 지열 및 태양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자생력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은 전화사업의 주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에는 환경보존을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탈황 및 질산화방지설비 등이 필요한 것이다. 전력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국가의 비상업 에너지원인 산림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 5 장 기술협력과 개발도상국

### 1.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우방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협력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대응하는 역할수행을 요청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여건변동으로 만성적으로 자본을 도입하던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소규모나마 자본을 제공하는 공여국의 위치로 그 국제적인 위치를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1987년 7월에 이루어졌던 두가지 사실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의 전환점을 명확하게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이정표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었다고 하겠다. 즉 우리나라의 주요 개발차관도입선의 하나였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서울사무소의 철수와 후발 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성(讓許性)이 높은 자본을 공여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설치에 이러한 상황전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여기에서 EDCF의 설치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사태의 전환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EDCF의 설치배경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국제적 지위향상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 세계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특히 남남협력 강화)
-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요청 증대에 부응
  - 개도국은 자기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

나 자본, 기술 등 부족

- 더욱이 선진국의 기술과 개발모형 적용에 한계가 있어, 모범적인 선발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요청 급증
- 세계경제에서 각국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지원

○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국내산업구조의 조정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의 구축 필요

○ 양허성 조건의 공적개발원조자금 지원

- 상업적 성격이 짙은 수출입은행의 중장기금융조건으로는 대개도국(對開途國)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양허성 조건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자금의 지원 필요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는 아직까지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 출연 및 분담금 형태의 다자간 협력이 50~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2자간 협력도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전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원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 규모가 확충되고 기금운용이 본격화될 경우 ODA에서 자본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대개도국 경제원조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DCF의 기금조성은 1987년도에 600억원, 1988년도 900억원 그리고 1989년에 1,300억원이 조성되어 현재 2,000억원 수준이나, 정부에서는 개도국과 공산권 국가들에게 대한 차관과 원조를 크게 늘리기 위하여 기금(EDCF)규모를 1990년대 후반까지 2조 4천 700억 수준까지 12배 이상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중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입 여건을 조성하고 개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개도국 경험자금인 EDCF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EDCF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에 지원되었으나 1990년말 관련 규정개정으로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공산권 국가들에게도 앞으로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인 OECD회원국들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대개도국 원조비율이 평균 0.35%인데 비하여 아직 우리나라는 0.04%수준임을 감안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이 비율을 0.3%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이중 50%인 0.15%는 EDCF가 담당토록 계획함으로써 OECD가입여건을 조성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 3. 기술협력의 의의

국제기술협력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하나로 연수생 훈련, 전문가 파견 및 무상 기술원조(T/A : Technical Assistance)의 제공 등으로서 그 의의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외 기술협력은 과학기술치가 주관하고 있는 대개도국 훈련생 초청과 개도국에 대한 전문가 파견이 있으며, 건설부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대외기술지원(T/A)과 개도국의 건설분야 국내연수훈련을 들 수 있다. 그밖에 농림수산부, 노동부의 훈련연수와 외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연수와 농업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자금공여요청과 함께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등 사업준비까지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개도국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즉 「개발조사협력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팔목할 만한 상태로까지는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건설부가 사전조사(Pre-Feasi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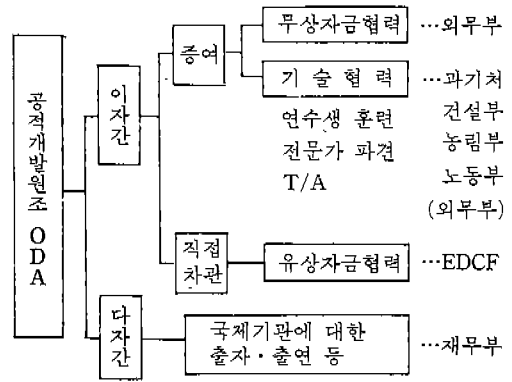
〈표 5-1〉 기술협력의 의의

구 분	필요성과 기대효과
엔지니어링 산업진출	개발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발굴등에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단계에는 자연스럽게 엔지니어링 및 컨설턴트 진출.
개발, 산업 기술전수	우리의 생산·개발·건설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제, 문화, 외교유대를 강화
해외진출 기반구축	초기 개발사업에 참여,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 수출과 후속사업 수주 기회 확보
건설상품 수 출	개발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게 됨으로 프로젝트 건설 및 기자재등 제품 수출 증대
선진화 및 국제화	기술이전과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화와 기술의 선진화 촉진

Study),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등 무상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해외건설 진출지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분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만한 협력사업의 발굴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경제기획원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상분야에 관계없이 유망한 협력사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조사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예산규모가 적고 사업준비 초기 단계의 사전조사(Pre F/S)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기술협력의 형태

세계경제의 조화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선진국만이 아니고 개도국의 경제발전도 필요하다. 불가결한 것인 바 선진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그림 5-1〉 공적개발원조와 기술협력의 형태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규정하는 개도국을 그 지원대상국으로 하여, 개도국들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과 기술원조(T/A)를 일층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합의하에 국제기관을 통한 다국간 또는 이국(二國)간 정부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해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와 기술협력의 형태를 그림 5-1에 제시하였다.

#### 5. 개발조사 협력사업

개발도상국들의 협력수요는 주로 개발자금지원 요청과 함께 우리의 개발경험 및 기술전수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술협력의 한 형태로서 개발조사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협력수단을 제도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 개발조사 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계획 수립 및 공공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조사단 파견을 통해 정책자문 및 현지조사 등의 컨설턴트 협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에 기여하는 협력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조사 협력사업을 주요 형태별

로 보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개발 기본구상(M/P : Master Plan), 사전조사(P/I : Project Identification), 예비 타당성조사(Pre F/S : Pre Feasibility Study), 본 타당성조사(F/S), 상세설계(D/D : Detailed Design), 사업 실시 계획(I/P : Implementation Plan) 및 프로젝트 평가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겠다.

또한 개발조사 협력사업은 1차적으로 컨설턴트 협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협력효과를 지니는 것이지만 무상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지원에 따르는 2차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으로부터의 지원요청에 따르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변환함으로써 후속적인 파급효과를 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해외전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지원대상국과 지원대상분야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일이 긴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원조 공여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및 물품 공여를 주로하는 개발협력(무상원조)사업

- 기자재 공여
- 최빈국 및 재난구호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활동
- 국제기구 및 협력기금에 대한 자금지원

#### ㉔ 기술용역 제공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무상기술용역 제공

-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환경위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자원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 농업, 산업공단 등 설치의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㉕ 개발조사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용역 및 프로젝트형 사업의 추진

- 경제개발, 국토개발 계획의 수립 및 타

당성 조사

- 천연자원 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상호교역 기반확대를 위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 (2) 인력협력사업

##### ㉖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도상국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파견국의 경제,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청년의 파견으로 인력지원

### 6. 한국국제협력단의 발족

우리나라의 다원화 되어있는 대외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창설되었다. 국제협력단의 설립목적과 앞으로 담당하게 될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설립목적

한국국제협력단은 협력대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각종 협력사업 및 해외인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나. 설립 경위

- 1991. 1. 14 : 국제협력사업단법 공포
- 1991. 3. 18 : 동법시행령 공포
- 1991. 4. 1 : 설립등기 및 발족

#### 다. 조 직 (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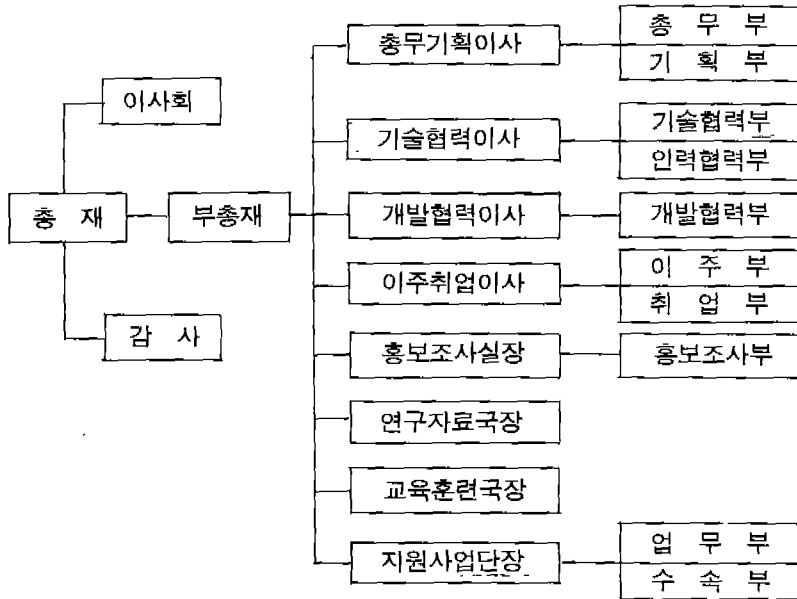
#### 라. 사업내용

##### (1) 경제협력사업

###### ㉖ 기술협력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과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상대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개발도상국 연수생초청 및 교육훈련의 실시
- 과학, 기술, 행정, 농·수산 광공업 등



〈그림 5-2〉 한국국제협력단의 조직

분야의 전문가 및 훈련교사의 파견

- 국제기구 활동의 지원 및 참여

㉑ 개발협력

- 농업, 의료, 보건등 기술분야 지원

- 사회복지활동 전개

- 청소년 활동 및 교육활동 실시

- 스포츠 교류

㉒ 의료단, 태권도사범 파견

개발도상국과의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의료단 및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하여 대상국과의 국제협력 증대와 그들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㉓ 해외이주 및 취업사업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진출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감.

- 정부지원의 계획이주 및 투자이주 사업추진

- 전문기술자 및 기능소지자 해외취업 기회 확대

(3) 조사연구사업

효율적인 국제협력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와 이를 통한 각종 사업간의 연계방안 강구

- 수혜국이 필요로 하는 실질협력 대상 분야 조사

-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사업 발굴

- 사업수행과 관련된 해외동향 조사연구

(4) 교육훈련사업

각종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의 실시

- 국제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

- 연수생 및 전문가 교육

- 해외이주 및 취업교육

(5) 부대사업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

- 여권수속 업무

- 항공권 발권 업무

정부는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에 따라 대개도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적 차원에서 이를 확대실시코자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 협력단은 한국해외개발공사를 주축으로 하여 각 부처에서 분산 실시중이던 국제협력사업을 통합, 유기적으로 연계, 집행함으로써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의도인 바, 앞으로의 활동에 크게 기대되는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